

진도 실종자 ‘무사생환 기원’ 부처님오신날 행사 축소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났다. 승객 475명을 태우고 인천항을 출발한 청해진 해운의 세월호가 4월 16일 진도 해상에서 침몰했다. 배는 1시간여 만에 완전 침몰했고, 179명만이 구조됐다. 18일 오후 6시 현재 사망자 28명, 실종자는 27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불교계 무사귀환 기도

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에 전국은 애도와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분위기다. 불교계 역시 전국 주요 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 무사생환을 바라는 기도와 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7일부터 전국 사찰에서 긴박한 구조 활동을 함께하는 마음으로 '진도 여객선 실종자 무사생환' 기도를 시작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불국 장엄등 점등식에서 "오늘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불의의 여객선 사고에 큰 안타까움을 느끼며, 모두가 무사히 구조되기를 기원한다"고 무사생환을 발원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태고종(총무원장 도산), 천태종(총무원장 춘광), 진각종(총리원장 회정 정사)도 여객선 침몰 생존자 긴급 구조와 실종자 무사생환 기원을 위한 기도와 법회 각 종단 소속 사찰과 심인당에서 진행하고 있다. 조계종 중앙총회 정책모임 삼화도량,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 불교계 각 단체들도 "세월호 침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기도를 정성을 다해 올리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했다.

실종자 가족 지원에 총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아름다운동행 산하 긴급재난구호 봉사대는 4월 17일 소속 활동가들을 진도 팽목항으로 급파했다.

긴급 구호단은 4월 16일 사고 당일 진도 향적사(주지 법일)와 현지상황을 공유한 다음 저녁 8시 선발대 파견을 결정했으며, 17일 실종자 가족이 모여 있는 진도 실내체육관 옆에 부스를 설치하고 식품과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다. 또한 구출된 생존자들이 긴급구호단 부스를 방문해 사건 이야기 나누며 스님들의 격려를 받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산하 해남장애인복지관 관계자들도 합류해 상황 수습에 일조하고 있으며, 인근 사찰에서도 지원 손길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백양사, 대흥사 등 호남 지역 본사 주지 스님과 중앙종회의원 스님 등도 현장을 찾아 실종



서울 종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걸린 실종자 무사생환을 기원하는 플랜카드. 전국 사찰들은 사고 직후부터 무사생환과 희생자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기도와 법회를 이어가고 있다.

조계종 등 주요종단 사찰들 '무사귀환' 기도 시작
자승 스님 "불의의 사고 안타까워... 무사히 구조되길"
조계종 진도에 17일 긴급 구호단 급파해 지원 활동
사고 관련 지역 사암연합회 현지서 희생자 위로 계획

자 가족을 위로했다. 해남 미황사는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실종자들은 무사하기를, 고인들에게는 깊은 애도를, 가족들은 슬픔과 분노를 거두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를, 우리 다함께 기도하자"고 독려했다.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은 애절한 심정을 17일 페이스북에 올렸다. 금강 스님은 "미황사에서 매일 바라다 보이는 곳이 진도바다. 꽃 같은 아이들이 꽃피는 봄에 차가운 바다에 떨어 있을 것을 생각하니 이제는 눈을 볼 수 없을 것 같다"면서 "저 바닷가에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상황을 전했다.

스님들 'SNS 희망 나르기'

현지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할링 멘토 스님들은 SNS를 통해 실종자 생환을 기원하는 등 희망의 불씨를 지켰다.

국민 할링 멘토 법륜 스님은 4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학생과 승객 및 선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불국 행사, 축소·연기 전망

부처님오신날과 각종 불국행사를 앞두고 벌어질 대형 인제에 불교계는 계획했던 행사들과 축제들을 축소, 연기하고 있다.

당장 4월 19~20일까지 양일간 개최하려했던 조계종 중앙신도회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제" 행사가 무기한 연기됐으며, 함께 진행 예정이었던 화쟁위원회의 대한민국 아단법석도 취소됐다.

조계종은 지역별 불국 행사를 화려한 음악과 율동을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것을 지침으로 시달렸다. 중앙에서 진행되는 L연등회 연등축제도 프로그램을 조정 중에 있다.

조계종은 "실종자 생환과 희생자 추모의 분위기로 연등회 전체 행사를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연등회 진행 시 화려한 음악, 율동, 장엄등을 자제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4월 18일 용두산공원에서 봉행한 연등축제 점등식 행사 프로그램을 대폭 축소하고 최대한 경건하게 진행했으며, 19일 예정된 비보이 대회와 문화공연도 취소했다.

울산, 대구, 안산 지역 불교계 역시 계획했던 문화공연을 취소하고 법요식과 점등식 등 최소한의 의식만 봉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교의 템플스테이 사찰과 시설들이 청소년 수련회와 문화체험 장소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만큼 시설물 안전 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들을 대상으로 4.5월 2차례 진행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교육은 고무적이다. 문화사업단은 "청소년 수련활동인증제도 교육 지원을 통해 운영사찰의 청소년 대상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제공하고 수련활동을 보다 용이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1면〉**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미륵 부처님을 기다리며 부처님오신날 불국위원회는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불국 장엄등 점등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점등식 이후 탑돌이 모습.

'나눔과 행복의 등' 불 밝히다

불국위, 16일 점등식... 미륵사지석탑 형상화

부처님오신날을 기리고 축하하는 연등회 연등축제가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부처님오신날 불국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불국위)는 4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점등식을 봉행했다.

이날 점등식에는 불국위원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

정 정사,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등 주요종단 지도자를 비롯해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 김상범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기홍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광화문 광장을 밝히는 장엄등 스님(조계종 총무원장),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

은 좌대를 포함해 20m에 이르며 40호 크기의 한지 500여장이 사용됐다. 미륵사지 석탑은 010년까지 해체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3년 11월부터 현재 복원공사 중에 있다. 복원은 2016년 완료될 예정이다.

이날 점등식에서 자승 스님은 기원문을 통해 "우리가 등을 밝히는 것은 지혜로써 마음을 맑게 하고 자비를 실천해 부처님의 향기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간절한 서원"이라며 "희망과 행복이 이 땅 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정진을 거듭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전통사찰 '개발제한 부담금' 완화 나선다

조계종 전통사찰 주지, 17일 대책위 구성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이 불사를 하기 힘든 요인 중 하나가 보전 부담금이다. 과도한 보전 부담금으로 인해 불사 계획을 취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통사찰 주지 스님들이 규제 완화를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조계종은 4월 17

일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을 위한 전통사찰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지 스님들은 이날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주지회의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관련 법안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결의했다.

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 금선사 주지 법안 스님, 간사에 화계사 주지 수암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대책위원회는 우선 전통사찰과 문화재의 경우 특례조항을 신설해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을 100%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989호 INDEX

시방세계
화쟁 100일 순례 전복 현장

5 종합
총무원장 선거제 개선 공청회

2 강의를 통해
'불성과 양지' 정인대 교수

8



제990호 부처님오신날 특집호(4월 30일자)는 연등회 취재 관계로 평소보다 지연됩니다. 독자여러분의 양해바랍니다.

디자인 등록원

명품 청동 촛대세트

웅장함을 토대로 세련된 형태의 장식미를 갖춘
국내에서 한국 장인이 직접 만든 명품청동촛대세트

- 불법을 수호하는 길상동물인 거북·사자·코끼리를 형상화하여 제작한 디자인 특허제품으로 오직 현불샵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 각 공법에 따라 4번의 주물작업을 통하여 완성된 작품입니다.
- 일반 촛대와 다르게 넘어질 염려가 없고, 안정성과 균형미가 뛰어 납니다.
- 한국 장인이 주문제작을 받아 직접 만드는 작품이므로 주문부터 발송까지 1주 ~ 15일 소요됩니다.

품명	규격 (세로 / 지름)	
촛대	사자 코끼리	(大) 51cm×21cm (中) 41cm×21cm (小) 35cm×21cm
	거북이	(中) 41cm×21cm (小) 35cm×21cm
	향로	(大) 28.5cm×34cm (中) 21.5cm×29cm (中) 18.5cm×23cm (小) 15.5cm×18cm
다기	다기	(大) 26cm×20cm (中) 22cm×14cm (中) 20cm×13cm (小) 17cm×12cm
	향통	(大) 15.5cm×7.5cm (小) 11.7cm×5cm
	다기	

저작권이 등록된 제품임으로 무단도용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촛대 (大)

촛대 (中)

촛대 (小)

향로

향통

다기

구입처 : 현대불교 현불샵 TEL 02)2004-8216